

왜 페르소나를 연출해야 하죠?

자네가 대학생이라면 교수에게 밝고 환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까, 생기 없고 우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까?

한번은 오후 수업 시작 전에 한 여학생이 교탁으로 와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교수님, 제가 오늘 배가 아파서요…”라기에 “어, 그래그래. 어서 병원에 가보렴” 그랬어. 그런데 강의 시작하고 우연히 창밖을 보니 1층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랑 환호성을 지르며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더라고. 아마 친구하고 땡땡이치는 모양이야. 귀엽더라.

그 학생은 내게 명랑하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호감가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해. 항상 밝기만 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겁 주는 이미지, 우울한 이미지, 의젓한 이미지 등을 필요에 따라 연출하지.

박지성이 은퇴 후 7년이 되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히딩크와 퍼거슨이라는 두 명장의 공통점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어. 박지성이 말하길 둘 다 선수들과의 ‘밀당’에 뛰어나대. 선수와 소통하고 동기부여하면서 개개인의 성향에 딱 맞춘 리더십을 적용해 선수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한다는 거지. 두 분 다 덕장이고 평소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데, 화낼 땐 엄청 무섭다더라.

인터뷰 끝에 그들처럼 명장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딱 잘라서 아니래. 명장들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잘 알게 됐는데, 자신에겐 그런 덕목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 덕목이 뭐냐니까 히딩크와 퍼거슨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끔은 선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조차 전략